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박지연*·문소연**·박태경***·윤선민****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설계

IV. 통계분석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설들을 수립하였다. 가설은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이벤트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로 요약된다.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40개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 일지’의 모든 이벤트를 성격과 분야별로 코딩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리서치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도를 종속변수로 도입

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의 증가는 대통령 지지도 증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이벤트 발생은 그 성격과 무관하게 유권자들의 결집효과 즉, 지지도 상승을 야기하는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 시에만 유의미하게 결집에 반대되는 효과가 관찰된다. 요컨대 논문은 가설 검증에 성공하였으며,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북한 관련 이벤트를 총체적으로 검토했을 뿐 아니라, 해당 이벤트의 성격과 분야까지 모두 코딩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북한, 이벤트 데이터, 요인 분석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 참여저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학부과정
*** 참여저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학부과정
**** 참여저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학부과정

I. 서론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혼자 국가를 지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 등을 통해 개별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현재의 지도자보다 더 매력적일 경우, 선호하는 지도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중의 마음을 얻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여기서 지도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국가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맥락은 국민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국민들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구분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3.6% 상승한 72.1%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 지지도 상승의 주요 요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결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³ 반면, 2019년 7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막말 사건이 반복되면서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보다 2.2% 하락하여 50% 아래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⁴ 한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2019)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관리에 대한 업무 능력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⁵

¹ Mesquita, B. B.D. & Smith, A. *The dictator's handbook* (New York.: William Morris Endaevor Entertainment, 2011), p. 54.

² 송샘·최병욱·김면희, “독일 중도정당의 쇠퇴와 유권자 양극화에 관한 연구: 정당파편화, 사회경제 및 지역 요인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7권 제2호 (2019), pp. 117~146; 문우진,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평화연구,” 제26권 제2호 (2018), pp. 5~44.

³ 리얼미터 1월 1주차 주중동향 <<http://www.realmeter.net/리얼미터-1월-1주차-주중동향남북해빙-기대감-고조/>> (검색일: 2020.8.13.).

⁴ 리얼미터 7월 5주차 주간동향 <<http://www.realmeter.net/리얼미터-7월-5주차-주간동향-文-대통령-공정-49-9-부정-45-5/>> (검색일: 2020.8.13.);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동향 <<http://www.realmeter.net/리얼미터-8월-2주차-주간동향-文-대통령-공정-49-4-부정-46-3/>> (검색일: 2020.8.13.).

⁵ 데일리 오피니언 제357호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18>> (검색일: 2020.8.13.).

몇몇 사례만을 근거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더불어 북한 관련 이벤트 중 어떠한 분야 혹은 성격의 이슈가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델을 제안한다. 정치, 경제와 관련한 일반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분석 시기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즉 최근 240개월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목적 등을 서술하였다. II장에서는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가설들을 도출한다. III장은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설계를 다루며, IV은 통계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한다.

II. 선행연구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재임 중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논의해왔다. 특히, 많은 논문들은 국내 경제와 정치적 환경 및 국제적 사건 등을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먼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국내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오랜 기간 이어졌다. 예를 들어 Hibbs(1979), MacKuen(1983), Norpoth(1984), Gronke·Brehm(2002), Berlemann·Enkelmann·Kuhlenkasper(2015) 등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다.⁶ 또한, Frey·Schneider(1978),

6 Douglas A. Hibbs, "The Mass Public and Macroeconomics Performance: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oward Unemployment and Inf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4 (1979), pp. 705~731; Michael B. MacKuen,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2 (May 1983), pp. 165~192; Helmut Norpoth, "Economics, Politics, and the Cycle of Presidential Popularity," *Political Behavior*, Vol. 6, No. 3 (1984), pp. 253~273; Paul Gronke, John Brehm, "History, heterogene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a modified ARCH approach," *Electoral Studies*, Vol. 21 (2002),

Smyth·Taylor(2010), Berlemann·Enkelmann(2014)는 인플레이션율뿐 아니라 실업률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들이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⁷ Monroe(1978)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실질개인소득, 주식 시장, 군사비 지출 등을 주요 변수로 도입하여 대통령 지지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과 군사비 지출이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⁸

둘째,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정치적 환경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정치적 상황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특히 기존 연구들은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라는 정치적 개념을 도입하여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지지도가 임기 초반에 우호적인 경향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허니문 효과란, 취임 초기에 언론, 야당의 비난 자제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도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⁹ Brody(1991)는 임기가 진행되며 생기는 비판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이를 점차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허니문 효과가 사라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¹⁰ 허니문 효과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구된 바 있는데, 가상준(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보다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 분석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¹¹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역사가 긴 대통령제로 인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반면, 대통령제 시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경우,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¹²

pp. 425~452; Michael Berlemann, Sören Enkelmann, Torben Kuhlenkasper, "Unrav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Approval and the Economy: A Multidimensional Semiparametric Approach,"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30, No. 3 (2015), pp. 463~486.

⁷ Bruno S. Frey, F. G. Schneider, "Economic and Personality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Popularity," *Empirical Economics*, Vol. 3, No. 2 (1978), pp. 79~89; D. J. Smyth., S. W. Taylor, "Presidential popularity: what matters most, macroeconomics or scandal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0, No. 9 (2010), pp. 585~588; Michael Berlemann, Sören Enkelmann,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U.S. presidential approv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6 (2014), pp. 41~54.

⁸ Monroe, Kristen R., "Economic Influences on Presidential Popularity,"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2, No. 3 (1978), pp. 360~369.

⁹ James A. Stimson, "Public Support for American Presidents: A Cyclical Model,"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0, No. 1 (1976), p. 11.

¹⁰ Richard Brody, *Assessing the president: The Media, Elite Opinion, and Public suppor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¹¹ 가상준,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4권 1호 (2006), p. 13.

셋째, 국제적 사건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Mueller(1970)는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결집효과는 전쟁 혹은 국제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지지도의 일시적인 상승은 외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도록 돕는다.¹⁴ 단 그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급격히 줄어드는데,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매년 5-6%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¹⁵ 가상준(2006)은 결집효과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미국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그 요인을 한국과 미국 유권자들의 국제적 사건에 대한 민감도 차이로 설명한다.¹⁶ 또한 Willer(2004)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자주 언급할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유사하게 강경태(2004)도 이라크와 테러 전쟁이 2004년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이슈 중 하나라고 서술한 바 있다.¹⁸ Hetherington·Nelson(2003) 또한 9.11 사건은 미국 부시 정부의 지지도 상승 및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¹⁹ 반면 직접적인 전쟁의 발생은 내부 결집을 필요로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질수록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²⁰

주로 해외의 사례를 다룬 앞선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 사례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은 경제지표와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정치적 성향과 더불어 언론 보도 경향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먼저, 배형석·양성국(2019)은 경제투표 이론을 바탕으로

¹² 가상준, 앞의 글, p. 13.

¹³ 위의 글, p. 5.

¹⁴ Alan J. Lambert, "Rally Effects, Threat, and Attitude Change: An Integr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Role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8, No. 6 (2010), pp. 886~903.

¹⁵ John E. Mueller,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1 (1970), p. 34.

¹⁶ 가상준, 위의 글, p. 8.

¹⁷ Robb Willer, "The effects of government-issued terror warnings o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Vol. 10, No. 1 (September 2004),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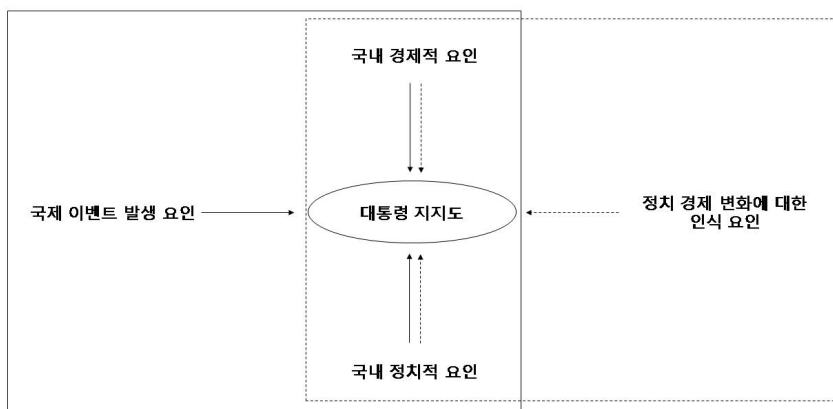
¹⁸ 강경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지지도 분석," 『미국학논집』, 제36권 2호 (2004), p. 24.

¹⁹ Marc J. Hetherington, Michael Nelson, "Anatomy of a Rally Effect: George W. Bush and the War on Terroris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6, No. 1 (2003), pp. 37~42.

²⁰ Benny Geys, "Wars, Presidents, and Popularity: The Political Cost(s) of War Re-Examined,"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4, No. 2 (2010), pp. 357~374.

실업률, 기준금리, 근원인플레이션을, 경제성장률, KOSPI가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준금리와 근원인플레이션이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²¹ 둘째, 문우진(2012)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유권자의 해당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소멸 즉, 가치에 대한 정치적 효용의 하락 또는 대체 후보의 가치에 대한 정치적 효용 증가 때문이다.²² 유사한 연구로 가상준(2006)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 태도 조사와 허니문 효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허니문 효과가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²³ 셋째,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여론 보도 경향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논문들이 있다. 이완수·심재철(2007)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SBS 경제뉴스 등의 기사를 통해 국민의 경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²⁴ 그 결과에 따르면, 물가지수 등의 현상적인 요인 뿐 아니라, 해당 경제적 환경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사실 건수가 한국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²⁵

〈그림 1〉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주: 실선은 국내외 일반 사례 분석에서 다른 요인들을 의미하며, 점선은 한국 관련 사례에서 다른 요인들을 의미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²¹ 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유라시아연구』, 제16권 4호 (2019), p. 1.

²² 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1호 (2012), p. 176.

²³ 가상준,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p. 9.

²⁴ 이완수·심재철, “집합적 경제보도와 국가적 경제상황 및 국민적 경제인식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회보』, 제21권 2호 (2007), p. 519.

²⁵ 이완수·심재철, 앞의 글, p. 537.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의 요인들을 모델에 도입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다룬 언론의 보도 경향 등은 연구에서 제외 하되 국제적 사건 발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접근을 일부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은 국내 차원의 문제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국제적 사건의 발생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이벤트는 국가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안건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종석(2000)과 신중대(2005)는 유신체제의 형성에 북한 요인이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²⁶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유신정권을 지원하는 감정으로 변하였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랜 기간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어온 이유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난 청와대 습격사건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공산당에 대한 공포심을 깊게 각인 시켰으며, 그 같은 공포심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²⁷ 본 논문은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 유권자들에게 결집효과를 유발하여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 (assume)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의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유의미성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포함하여 연구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의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벤트의 성격이 긍정인가 혹은 부정인가에 따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²⁶ 이종석, “남북대화와 유신체제: 체제형성에 대한 분단구조의 영향,” 한국정치학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0; 신중대, “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2005), pp. 128~163.

²⁷ 신중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19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108.

가설 2.

북한 관련 이벤트의 분야에 따라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각 분야의 이벤트 성격이 긍정인가 혹은 부정인가에 따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종속변수

본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월간의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동일한 기간의 한국 대통령 지지도가 된다.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의 긍정 평가 비율을 대통령 지지도 지표로서 연구에 도입한다. 본 논문에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의 결과이다. 첫째, 리서치앤리서치는 200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201개월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36개월 중 7개월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를 조사하였다.²⁸ 해당 지표는 다른 두 개의 지표와 비교하여 가장 긴 연속 구간에 대한 지지도 자료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58개월의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준다.²⁹ 따라서 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17년간의 대통령의 지지도 수준을 비교적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²⁸ 리서치앤리서치가 단독 발표한 2016년 9월까지의 국정수행 지지도 자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고 자료를 참조함. 리서치앤리서치 <<http://w3.randr.co.kr/info/?viewpage=6&viewNo=2&pn=1&ss=&bn=0>> (검색일: 2020.8.1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검색일: 2020.8.13.).

²⁹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동향과 분석'의 과월호와 지난 호에 담긴 국정수행지지도를 분석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보고 자료도 참조함.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http://www.ksoi.org/index.php>> (검색일: 2020.9.2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검색일: 2020.8.13.).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는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시기인 2013년 3월에서 2017년 3월까지에 대해서는 49개월 중 9개월에 대한 자료만이 존재한다. 최근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6월과 연말인 2019년 12월에 대한 지지도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한국갤럽이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95개월간 월 단위로 발표되었다.³⁰ 이는 다른 두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사 시기가 짧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최근 96개월간의 추이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요컨대 본 논문의 종속 변수는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이며, 해당 변수의 지표로서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모두 활용한다.³¹

〈표 1〉 종속변수

종속변수	지표	자료 및 제공 기간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서치앤리서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2000.1-2016.9/2017.11-12/2018.4-5,8,12/2019.1
		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003.5-2010.10/2011.1-2013.6/2013.8,11/2014.2-3,6,12/ 2015.2-3/2017.5-2018.4/2018.6-2019.11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2.1-2019.12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³⁰ 본 논문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의 일반 문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결과(요청일: 2020년 8월 21일, 답변일: 2020년 8월 24일)를 활용함. 1988년에서 2011년까지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와 언론사의 의뢰 조사가 섞여 있고 조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분기별 대표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함. 매주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분기별 수치는 각 분기의 중간 단위 조사 평균 값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갤럽의 데이터 사용 방침에 따라 소수점 아래의 수치는 무시함.

³¹ 기관별 대통령 지지도 조사 방법은 유사하나, 조사 시기 등의 차이가 있어 연구시기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모든 지표를 일괄 도입하였음을 밝힘.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월간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해당 시기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벤트는 유권자들의 결집효과를 유도하며, 그 결과 이벤트 발생은 대통령 지지도에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차용하여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관련 이벤트 추출을 위해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 일지’를 활용한다.³²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³³을 도입하여 주요일지의 이벤트 분야와 성격을 구분하고 월별 해당 이벤트 발생 횟수를 추출하여 가설에 도입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야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서 본 논문은 이벤트의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는 ‘국가 전체와 연계된 입장 혹은 정책 및 군사와 관련한 이벤트’로 한정하며, 경제 분야는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사회 기반 건설 등에 관련된 이벤트’로 정의한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는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와 문화적 교류, 사회·문화 시스템, 역사, 문화유산, 종교와 관련된 이벤트’로 정의한다.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월간의 일지를 1차적으로 검토 한 후, 핵심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분야별 이벤트 추출의 일관성을 높였다.

³²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일지’는 통일부가 선별한 북한 관련 이벤트를 일별 기록한 것임. 따라서 해당 자료는 정부가 선별한 이벤트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띠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통일백서』가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공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바, 해당 이벤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전제할 수 있을 것임. 『통일백서』 <<https://www.un.ikorea.gokr/books/whitepaper/whitepaper/>> (검색일: 2020.9.29).

³³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이란 변화하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매월, 매년, 심지어 매일의 단위까지 집합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기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매일 단위까지 집합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힘. 분석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형기,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탈냉전기 북한과 주변국과의 분쟁-협력 관계, 1990-2007,” 『비교민주주의연구』 제6집 1호 (2010)을 참조할 수 있음.

〈표 2〉 ‘남북관계 주요일지’ 이벤트 분야 구분

분야	정의	핵심어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전체와 연계된 입장 혹은 정책 및 군사 관련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정상회담, 연설, 국회, 안보태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핵문제, 지뢰, 미사일 발사, 대북 제재, 핵, 한미 워킹그룹, 전략물자, 정치적 인물, 통일대화합 등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사회 기반 건설 등에 관련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남북경제공동체, 관광, 남북철도-도로연결, 협력 사업,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차관, 교류 협력, 경제협력, 수해방지사업, 공단 등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와 문화적 교류, 사회·문화 시스템, 역사, 문화유산, 종교와 관련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 선원, 지원, 남북 적십자 회담, 취재, 남북공동행사, 왕래(민간 차원), 이산가족, 공연, 송환, 인도,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남북 경제 문화 협력단, 민간, 교류협력, 통일대축전, 이산가족면회소건설, 지진-화산-기상-자연-기후-산림 관련 협력, 어선, 통일 대화합, 보수단체, 민간단체, 노동규정, 질병, 폭발사고 등

자료: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일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월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진들의 분야 선정 후 1차 검토를 실시하여 핵심어를 선정함.

전술한 기준들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세부 규칙을 추가로 선정하여 반영한다. 첫째, 행위로 분야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소속 등을 고려하여 분야를 확정한다. 둘째, 분야 중립적인 법과 정책 그리고 결의안 및 기타 위원회와 관련한 이벤트의 경우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이벤트의 분야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14일에 있었던 ‘국회 결의안 대북 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촉구’의 이벤트는 결의안 관련 내용으로 분야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상봉임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의 분야로 구분한다. 셋째, 이벤트의 성격이 복합적일 경우 두 개 이상의 분야로 구분하여 중복 기재한다.

〈표 3〉 ‘남북관계 주요일지’ 이벤트 분야 구분 세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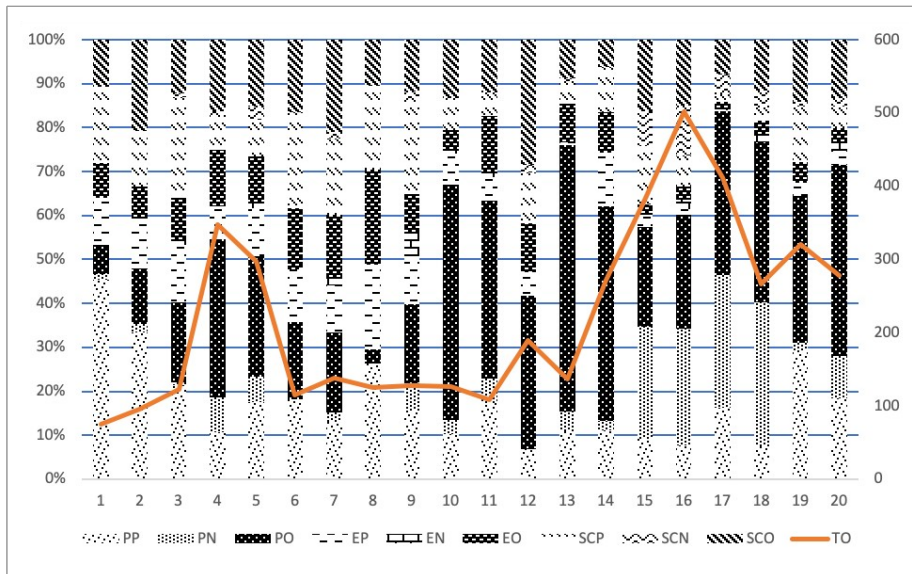
세부 규칙	내용
1-1.	행위로 분야 구분이 어려울 경우, 행위자를 고려하여 구분
2-1.	법과 정책 그리고 결의안 및 기타 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이벤트의 분야를 구분한다.
2-2.	a)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세부 내용 없을 경우 정치 b)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세부 내용 없을 경우 사회·문화 c)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세부 내용 없을 경우 경제, 사회·문화 d)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세부 내용 없을 경우 경제, 사회·문화 e) 교류협력: 세부 내용 없을 경우 경제, 사회·문화 f) 법, 정책, 결의안: 1. 세부 내용이 국가의 사건 혹은 국가 대상이면 정치 2. 민간 대상이면 사회·문화
3-1.	이벤트의 성격이 복합적일 경우 두 개 이상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3-2.	a) 남북정상회담 기념사 축사: 사회문화, 정치 b) 행사와 관련된 것들에 정치적인 것들이 연관되어 있으면 정치

자료: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일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월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쳐 세부 분야 선정 규칙을 정함.

다음으로는 북한 관련 이벤트의 성격을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 이벤트의 성격이란 ‘긍정’ 혹은 ‘부정’ 혹은 ‘알 수 없음’으로 정의하며, 이벤트의 성격 분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첫째,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기술된 마지막 ‘서술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는 이벤트의 최종적인 성격이 대부분 서술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분류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과 부정의 키워드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하여 활용한다. 해당 키워드는 김형기(2010)³⁴의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술어이다. 셋째, 선정한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은 이벤트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한다. 또한 한 분야에 대한 긍정, 부정 키워드가 중복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해당 이벤트의 성격을 ‘알 수 없음’으로 구분한다. 단, 별도의 서술어 없이 기록된 경우에는 주어를 확인하여 이벤트의 성격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축전’, ‘친서’ 등 서술어 없이 기술된 이벤트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구분한다.

³⁴ 김형기,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탈냉전기 북한과 주변국과의 분쟁-협력 관계, 1990~2007,” pp. 141~175. CAMEO의 코딩스킴(coding scheme)을 기준으로 행위를 분석함.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위협, 거절, 불승인, 요구, 조사, 양보, 원조, 동의, 요청, 협력, 승인, 협의, 언급”이 있음.

〈그림 2〉 연도별 분야 분포와 분야별 성격 분포 정리



주1: PP는 정치 분야 긍정, PN는 정치 분야 부정, PO는 정치 분야 알 수 없음을 의미함.
 주2: EP는 경제 분야 긍정, EN는 경제 분야 부정, EO는 경제 분야 알 수 없음을 의미함.
 주3: SCP는 사회문화 분야 긍정, SCN는 사회문화 분야 부정, SCO는 사회문화 분야 알 수 없음을 의미하며,
 TO는 전체 이벤트 총합을 의미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이벤트 발생은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 일시적인 증가 추이가 관찰된다. 연평균 이벤트 발생 수는 약 221.8회이며, 전반적으로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분야별로는 먼저, 정치 분야의 이벤트 발생이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 분야의 이벤트 발생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둘째, 경제 분야의 이벤트 발생은 2000년대 중반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이벤트 발생은 전체의 20% 내외로 관찰되며,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연도별 빈도 차이가 낮은 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예컨대 경제적 요인으로는 Mueller(1970), MacKuen(1983), Norpoth(1984), Gronke·Brehm(2002), Frey·Schneider(1978)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실업률을 도입한다.³⁵ 더불어 MacKuen(1983), Norpoth(1984), Gronke·Brehm(2002), Monroe(1978)이

소개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또한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로 다룬다.³⁶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재임 월수를 지표로 도입한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다는 ‘허니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³⁷ 해당 지표는 취임한 달을 시작으로 각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대해 남은 임기를 개월 수로 60에서 1까지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한다. 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이 부재했던 2017년 4월에 대해서는 결측값으로 남겨 둔다. 한편 본 연구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정치 요인의 추가 지표로 도입한다.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기들로 구분되는 바, 각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을³⁸ 구분하는 변수로 추가한다. 각 변수들에 대한 지표 및 측정에 대한 정보와 지표의 기술통계는 <표 4>와 <표 5>를 참조할 수 있다.

³⁵ Douglas A. Hibbs, “The Mass Public and Macroeconomics Performance: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oward Unemployment and Inflation,” pp. 705~731; Michael B. MacKuen,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pp. 165~192; Helmut Norpoth, “Economics, Politics, and the Cycle of Presidential Popularity,” pp. 253~273; Paul Gronke, John Brehm, “History, heterogene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a modified ARCH approach,” pp. 425~452; Bruno S. Frey, F. G. Schneider, “Economic and Personality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Popularity,” pp. 79~89.

³⁶ Michael B. MacKuen,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pp. 165~192; Helmut Norpoth, “Economics, Politics, and the Cycle of Presidential Popularity,” pp. 253~273; Paul Gronke, John Brehm, “History, heterogene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a modified ARCH approach,” pp. 425~452; Monroe, Kristen R., “Economic Influences on Presidential Popularity,” pp. 360~369.

³⁷ John E. Mueller,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p. 31.

³⁸ 본 연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으로 정의함. 해당 구분은 당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일반적인 성향에 따라 판단함.

〈표 4〉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독립변수	지표(variables)	측정(자료)	
북한 관련 이벤트	북한 관련 이벤트 횟수(TO)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측정함. 〈표 2〉와 〈표 3〉 참조	
	긍정 이벤트(POE)		
	부정 이벤트(NEE)		
	알 수 없음(OTE)		
	분야별 이벤트 횟수		성격별 이벤트 횟수
	정치 이벤트 (PE)		정치 긍정(PP)
			정치 부정(PN)
			정치 알 수 없음(PO)
	경제 이벤트 (EE)		경제 긍정(EP)
			경제 부정(EN)
			경제 알 수 없음(EO)
	사회문화 이벤트 (SCE)		사회문화 긍정(SCP)
사회문화 부정(SCN)			
사회문화 알 수 없음(SCO)			
통제변수	지표(variables)	측정(자료)	
경제적 요인	실업률(Unemployment)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근원 인플레이션율(Underlying Inflation rate)		
정치적 요인	대통령 잔여 임기 월수(Month)	남은 임기 개월 수	
	정권의 정치적 성향(Disposition)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진보=1 이명박, 박근혜 정부 : 보수=0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요약

독립변수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북한 관련 이벤트	TO	18.4875	12.119	0	61
	POE	5.65	4.134051	0	17
	NEE	3.079167	5.483904	0	27
	OTE	9.758333	6.794036	0	31
	PE	10.96667	9.040526	0	50
	PP	2.7875	2.592363	0	12
	PN	2.3125	4.194818	0	22
	PO	5.866667	4.982704	0	21
	EE	2.5375	2.844405	0	21
	EP	1.0625	1.584526	0	9
	EN	0.1541667	0.5226895	0	4
	EO	1.320833	1.72636	0	12
	SCE	4.983333	4.534357	0	20
	SCP	1.8	1.945276	0	10
	SCN	0.6125	1.512794	0	8
	SCO	2.570833	2.743418	0	18
통제변수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제적 요인	실업률	3.584167	0.5356724	2.6	5.7
	근원 인플레이션율	2.22	0.8302946	0.5	4.5
정치적 요인	대통령 잔여 임기 월수	30.70192	16.60765	1	60
	정권의 정치적 성향	0.5420168	0.4992815	0	1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통계분석

1. 가설 1 검증: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논문은 종속변수로서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독립변수인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률, 근원물가지수 및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정권의 성격 등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벤트 발생의 효과에 대한 시차를 감안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당월 포함 10개월 이전까지의 독립변수 발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 횟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는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모델 (1)-(6)을 살펴보면, 모델 4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³⁹ 그 외에도 두 종속변수 지표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은 즉 허니문 효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6〉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전체 이벤트 발생 횟수

구분	(1)	(2)	(3)	(4)	(5)	(6)
이벤트 횟수	0.279** (0.103)	0.325** (0.110)	0.346** (0.114)	0.084 (0.109)	0.387* (0.157)	0.483** (0.168)
실업률	0.138 (2.051)	1.112 (2.338)	2.038 (2.555)	-3.138 (1.929)	4.005 (2.787)	6.066 (3.070)
근원 인플레이션율	-12.317*** (1.164)	-11.617*** (1.333)	-11.441*** (1.431)	6.327 (3.318)	-1.272 (4.791)	-5.401 (5.165)
대통령 잔여 임기 월수	0.615*** (0.058)	0.530*** (0.066)	0.451** (0.072)	0.578*** (0.067)	0.305** (0.094)	0.183 (0.103)
정권의 정치적 성향	-2.297 (1.834)	0.232 (2.068)	0.819 (2.277)	1.004*** (3.418)	17.198** (5.064)	14.030* (5.488)

³⁹ 리서치앤리서치 분석 결과는 R²값이 0.1-0.2로 수준으로 낮으며 결과는 유사한 바, 물리적인 제약으로 표에서 제외함을 밝힘.

구분	(1)	(2)	(3)	(4)	(5)	(6)
Constant	40.821*** (8.040)	44.091*** (9.000)	34.535*** (9.525)	18.322* (7.370)	7.070 (10.528)	8.336 (11.628)
N	152	150	148	85	80	79
R-squared	0.670	0.590	0.541	0.719	0.471	0.400

주1: *** p<0.01, ** p<0.05, * p<0.1.

주2: 모델 (1)~(3)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종속변수의 지표로 하여 각각 1, 3, 5개월 전의 종속변수를 도입한 모델임; 모델 (4)~(6)은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종속변수의 지표로 하여 각각 3, 6, 7개월 전의 종속변수를 도입한 모델임.

둘째, 전체 북한 관련 이벤트를 그 성격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종속변수로 도입한 결과, 대부분의 모델에서 최근 북한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매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7〉 참조). 반면 대부분의 모델에서 부정적인 성격의 이벤트 발생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 혹은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리서치앤리서치 지표를 활용한 모델(1)의 경우, 부정적인 성격의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7〉 한국 대통령 지지도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이벤트 성격별 발생 횟수

구분	(1)	(2)	(3)	(4)	(5)	(7)
긍정적 이벤트	0.733** (0.229)	0.542* (0.253)	0.736** (0.257)	0.700* (0.272)	0.651* (0.249)	1.619*** (0.324)
부정적 이벤트	-0.173** (0.183)	0.540 (0.314)	0.232 (0.317)	0.152 (0.305)	-0.033 (0.169)	0.320 (0.220)
알 수 없음 이벤트	0.086 (0.151)	0.313 (0.193)	0.411 (0.228)	0.249 (0.241)	-0.001 (0.219)	-0.204 (0.291)
실업률	5.160** (1.776)	-0.950 (2.237)	1.288 (2.479)	2.250 (2.609)	-3.039 (1.978)	3.703 (2.624)
근원 인플레이션율	-4.549*** (1.139)	-11.640*** (1.325)	-11.076*** (1.448)	-11.701*** (1.544)	6.953 (3.241)	-1.518 (4.328)
대통령 잔여 임기 월수	0.273*** (0.055)	0.545*** (0.063)	0.457*** (0.071)	0.443*** (0.075)	0.509*** (0.071)	0.204* (0.089)

구분	(1)	(2)	(3)	(4)	(5)	(7)
정권의 정치적 성향	0.009 (2.010)	-1.489 (2.101)	-0.864 (2.231)	-0.482 (2.448)	20.511*** (3.430)	14.232** (4.731)
Constant	22.127** (7.129)	42.891*** (8.934)	34.639*** (9.781)	34.480*** (10.116)	17.609* (8.026)	13.461 (10.659)
N	208	151	149	148	85	80
R-squared	0.271	0.625	0.583	0.541	0.734	0.569

주1: *** p<0.01, ** p<0.05, * p<0.1.

주2: 모델 (1)은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운영 평가를 종속변수의 지표로 하여 2개월 전의 종속변수를 도입한 모델임; 모델 (2)~(4)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종속변수의 지표로 하여 각각 2, 4, 5개월 전의 종속변수를 도입한 모델임; 모델 (5)~(6)는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종속변수의 지표로 하여 각각 3, 6개월 전의 종속변수를 도입한 모델임.

요컨대,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설 1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단, 이벤트 성격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의 경우 대통령의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의 경우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지지도 변수의 경우에만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 검증: 분야별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분야별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대통령 지지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을 변수로 포함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리서치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도를 종속변수로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첫째,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지지도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정치 분야의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 중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이 증가할수록 대통령 지지도 또한 증가한다. 더불어 경제 분야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이 증가할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낮아진다. 둘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정치 분야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이벤트 모두에 대하여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 관련 정치 분야의 이벤트 발생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모두 대통령 지지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모델 (3), (4), (5)). 반면 경제 분야의 이벤트 발생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벤트의 경우만 유의미한 관측치를 보인다. 즉 경제 분야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이 많아질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아진다(모델 (3)). 셋째, 한국갤럽의 종속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앞의 두 경우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정치 분야의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증가할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문화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이 많아질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낮아진다.

〈표 8〉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이벤트 분야 및 성격별 발생 횟수

구분	(1)	(2)	(3)	(4)	(5)	(6)	(7)
정치 긍정	0.811* (0.411)	0.877* (0.416)	0.988* (0.398)	0.988* (0.409)	1.491** (0.467)	1.435** (0.491)	2.058*** (0.516)
정치 부정	0.087 (0.334)	0.110 (0.333)	1.203* (0.461)	1.352** (0.493)	0.738 (0.566)	0.353 (0.349)	-0.036 (0.358)
정치 알 수 없음	-0.092 (0.240)	-0.137 (0.236)	0.006 (0.260)	0.041 (0.282)	0.155 (0.312)	-0.316 (0.360)	-0.375 (0.359)
경제 긍정	0.216 (0.590)	0.132 (0.588)	-1.286 (0.696)	-0.487 (0.832)	-0.971 (0.726)	1.716 (1.110)	0.455 (1.211)
경제 부정	-4.570* (1.990)	-4.142* (1.729)	-1.539* (1.704)	-2.215 (2.040)	-0.798 (1.919)	0.044 (2.355)	-0.732 (2.423)
경제 알 수 없음	0.071 (0.534)	-0.158 (0.534)	0.177 (0.561)	0.708 (0.665)	0.807 (0.661)	-0.386 (1.114)	-0.593 (1.283)
사회문화 긍정	0.948 (0.487)	1.154 (0.473)	0.084 (0.537)	0.753 (0.594)	1.191* (0.581)	2.211** (0.740)	2.459** (0.748)
사회문화 부정	-0.528 (0.814)	-0.402 (0.814)	-2.577* (1.134)	-1.109 (1.403)	-1.714 (1.244)	-0.350 (0.922)	0.035 (0.940)
사회문화 알 수 없음	0.357 (0.338)	0.473 (0.343)	0.865* (0.355)	0.842* (0.362)	1.329* (0.528)	0.648 (0.592)	1.445* (0.626)
실업률	5.011** (1.857)	6.585*** (1.905)	0.373 (2.125)	-0.943 (2.350)	0.922 (2.536)	4.701 (2.912)	9.816** (3.018)

이벤트 발생은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이벤트의 성격이 긍정 혹은 부정인가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관련 이벤트가 발생한 분야 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 어느 분야의 이벤트인가에 따라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한편, 각 분야의 이벤트 성격이 긍정 혹은 부정인가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대통령 지지도는 리서치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갤럽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관심 독립변수인 북한 관련 이벤트는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 ‘남북관계 주요일지’의 모든 이벤트를 전수 조사하여 이벤트들을 성격과 분야별로 코딩하여 도입하였다. 연구기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40개월이었으며,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첫 번째 가설의 검증을 의미한다. 단, 이벤트 성격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의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의 경우 리서치앤리서치의 대통령 지지도 변수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야별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이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다. 특히 정치 분야의 경우에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과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 모두가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벤트 발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의 경우에만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컨대 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은 대통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한 사업자 추방은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 관련 이벤트 발생을 240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벤트의 성격과 분야를 모두 코딩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초기 연구로서 높은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국제적 사건 발생의 결집효과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확대하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바, 새로운 영역으로의 연구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더한다. 반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 도출에는 한계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 지지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벤트 데이터 분석의 구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관련 이벤트의 성격과 더불어 강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벤트 발생의 현상을 넘어 해당 현상에 대한 대응을 포함, 결집효과의 형성과 소멸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출: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2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Brody, Richard A. *Assessing the president: The Media, Elite Opinion, and Public suppor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Mesquita, B. B.D. & Smith, A. *The dictator's handbook*. New York: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2011.

2. 논문

- 가상준. “한. 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세계 지역연구논총』. 제24권 1호, 2006.
- 강경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지지도 분석.” 『미국학논집』. 제36권 2호, 2004.
- 김형기.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탈냉전기 북한과 주변국과의 분쟁-협력 관계, 1990-2007.” 『비교민주주의연구』. 제6집 1호, 2010.
- 문우진.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평화연구』. 제26권 2호, 2018.
- 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1호, 2012.
- 배형석·양성국.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유라시아연구』. 제16권 4호, 2019.
- 송샘·최병욱·김민희. “독일 중도정당의 쇠퇴와 유권자 양극화에 관한 연구: 정당파편화, 사회경제 및 지역 요인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7권 2호, 2019.
- 이완수·심재철. “집합적 경제보도와 국가적 경제상황 및 국민적 경제인식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2호, 2007.

- 신중대. “신체제 수립원인에 관한 재조명 -북한요인의 영향과 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2005.
- _____.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19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전용주.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권 1호, 2006.
- 최준영. “스캔들, 경제적 성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3호, 2014.
- D. J. Smyth. and S. W. Taylor, “Presidential popularity: what matters most, macroeconomics or scandal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0, No. 9, 2010.
- Frey, B. S. and F. G. Schneider, “Economic and Personality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Popularity.” *Empirical Economics*. Vol. 3, No. 2, 1978.
- Geys, Benny. “Wars, Presidents, and Popularity: The Political Cost(s) of War Re-Examined.”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4, No. 2, 2010.
- Gronke, Paul and John Brehm. “History, heterogene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a modified ARCH approach.” *Electoral Studies*. Vol. 21, 2002.
- Hibbs, Douglas A. “The Mass Public and Macroeconomics Performance: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oward Unemployment and Inf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4, 1979.
- Lambert, Alan J. “Rally Effects, Threat, and Attitude Change: An Integr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Role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8, No. 6, 2010.
- Mackuen, Michael B.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2, 1983.
- Hetherington, Marc J. and Michael Nelson, “Anatomy of a Rally Effect: George W. Bush and the War on Terroris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6, No. 1, 2003.
- Michael Berleemann and Sören Enkelmann,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U.S. presidential approv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6, 2014.
- Michael Berleemann, Sören Enkelmann, and Torben Kuhlenkasper, “Unrav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Approval and the Economy: A Multidimensional Semiparametric Approach.”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30, No. 3, 2015.
- Monroe, Kristen R. “Economic Influences on Presidential Popularity.” *The Opinion Quarterly*. Vol. 42, No. 3, 1978.
- Mueller, John E.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1, 1970.

Abstract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Popularit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Impacts of North Korea related Events

Park, Jiyoun, Moon, Soyeon, Park, Taekyeong and Yun, Seonmin

This paper explores people's decision making factors on presidential popularity in South Korea. Especially, we focus on whether the event related to North Korea affects to presidential popularity in South Korea. Based on a event data analysis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9, it was confirmed that the occurrence of events related to North Korea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on the presidential popularity as follows. First, when there are more events related to North Korea, more people support South Korean government in general. Second, when there are more event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in the political sector, there would be more supporters for the president. Thirdly, however, in the economic sector, there are more supporters when there are less negative events.

Key Words: Presidential Popularity in South Korea, North Korea, Event data, Factor Analysis